

'황금돼지 해' 기다리는 돼지띠 스타들



이순재 윤여정 고현정 정유미 설현 방탄소년단 뷔

이순재·윤여정 ... 안방극장·스크린 넘나들며 활약 방탄소년단 등 재능 넘치는 1995년생 아이돌 많아

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황금 돼지'의 해다.
K팝 새 역사를 쓴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의 뷔(23)와 지민(23)은 한국 가요계를 황금빛으로 빛낼 대표적인 돼지띠 스타다.
지난 10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한 방탄소년단은 내년에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예정이다. 가깝게는 내년 1월 싱가포르, 3월 홍콩, 4월 태국 공연이 예정됐다.
1995년생 가온데이션 유독 스타가 많다.
트와이스 나연, 블랙핑크 지수를 비롯해 마마무 화사과 휘인, AOA 설현, 볼빨간사춘기 안지영, 여자친구 소원, 러블리즈 케이, 프리스틴 나영, 우주소녀 보나, 예시-선의, 이엑스아이디 정하, 오마이걸 유아, 구구단 나영, 다이아 기획현 등 여성 뮤지션 활약이 기대된다.
트와이스는 내년 3~4월 K팝 걸그룹

최초로 일본 돔 투어에 나선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 가수들의 위상은 돔구장(야구장), 아레나(경기장) 등의 공연장 규모로 가능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블랙핑크는 아시아에서 콘서트를 열어 해외 팬들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보이그룹에서도 톱톡 튀는 돼지띠 스타들이 눈길을 끈다. 뉴이스트는 멤버 다섯 명 중 황민현·JR·랜·백호 네 명이 돼지띠다. 비투비 육성재, 워너원 육성우, NCT 태용·유타·지니, MXM 임영민, 세븐틴 에스쿱스·정환, 아이콘 바비, 빅스 학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육성우와 황민현은 오는 31일 워너원 활동이 종료되며, 내년 1월 워너원 마지막 콘서트를 끝으로 홀로서기에 나선다. 황민현은 원래 팀인 뉴이스트로 돌아가 새 앨범을 준비하며, 육성우는 가수와 배우 모두에 길을 열어두고 고심 중이다.
2세대 아이돌을 이끈 1983년생 아이돌로는 슈퍼주니어 이특과 김희철이 있

다. 십센치 권정열, 손담비, 별, 테이도 동갑내기들이다. 슈퍼주니어는 사회복지무원인 규현이 내년에 소집 해제됨에 따라 드디어 11인조 완전체 활동에 나선 전망이다.
배우 가운데선 영화 '부산행'과 드라마 '연애의 발견', '라이프' 등 다양한 작품에서 매력을 발산한 정유미가 돼지띠다. 영화 '신과 함께'로 눈도장을 찍은 김동욱, 류현경, 정경호, 윤진서, 전혜빈, 박해진, 손주완도 있다.
1971년생 중에는 빼어난 배우들이 포진했다. 톱스타 이영애, 고현정, 이미연, 오연수를 필두로 이서진, 안재욱, 송일국, 김태우, 장웅인, 권오중, 조희봉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고의 MC 신동엽, 남희석은 지금도 예능 프로그램을 누비며 여전히 입담을 뽐낸다. 뮤지션 중에는 유희열, 김경호, 김연우, 자우림 이선규, 현진영이 있다.
1959년생 돼지띠로는 '영원한 오빠'인 가수 이문세와 파워풀한 가수 인순이를 비롯해 배우 박성원, 김미숙, 선우은숙이 친근한 스타로서 사랑받고 있다.
1947년생으로는 트로트 황제 나훈아

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올해 11년 만의 전국 투어 '드림 어게인' (Dream Again)을 열어 연일 매진을 기록, 여전한 티켓 파워를 입증했다. '최고의 소리꾼', '트로트 절대지존'으로 불리는 나훈아는 지난해 새 앨범 '남자의 인생'을 펴내 '아이리애', '내 청춘', '죽는사냥' 등 절절한 명곡을 뽑아냈다.
명배우 윤여정은 TV와 스크린을 넘나들며 에너지를 뽐낸다. 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포맷의 tvN 예능 '윤식당2'를 이끌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윤여정의 요리법이 해외 유튜브들 사이에서 회자하고, 중국에선 '윤식당'을 표절한 프로그램 '중찬링'까지 나왔다.
1935년생 국민배우 이순재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아버지상, 스승상을 제시하며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연기를 펼쳐왔다.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에는 정부포상인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타'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여든을 훌쩍 넘겨서도 연기만큼 재미있는 게 없다는 그는 이달 6일부터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 주연으로 활약 중이다. /연합뉴스

문근영, '동물의 사생활'서 펍킨 다큐멘터리 제작

배우 문근영(사진)이 '동물의 사생활'에서 펍킨 다큐멘터리 제작에 나선다.
KBS 2TV는 문근영, 김혜성, 에릭남이 이끄는, 박진주, 인피니트 성열과 엘의 뒤를 이어 '동물의 사생활'에 출연한다고 22일 밝혔다.
'동물의 사생활'은 스타들이 직접 동물 다큐멘터리 제작에 도전하는 내용이다. 앞서 이하니, 박진주, 성열, 엘은 흑등고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문근영, 김혜성, 에릭남은 세상의 끝에 사는 땅 위 펍킨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다. 오는 1월 4일 밤 8시 55분 방송. /연합뉴스

성탄 시즌송 1위 성시경·박효신 '크리스마스니까'

지니뮤직 캐럴 '톱 10'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2월 가장 사랑받은 캐럴은 어떤 곡일까. 평소 최신 가요를 즐겨 듣는 이들도 크리스마스 시즌송은 과거 출시된 노래와 팝송을 즐겨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음악서비스 지니뮤직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집계한 크리스마스 캐럴 '톱 10' 차트에서 성시경, 박효신, 이석훈, 서인국, 빅스 등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가수들이 2012년 발표한 '크리스마스니까'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2013년 출시된 켈리 클라크슨의 '언더니스 더 트리' (Underneath The Tree), 3위는 2005년 발표된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꼽혔다.
4위는 '팝의 요정' 아리아나 그란데의 2013년 발표곡 '라스트 크리스마스' (Last Christmas), 5위는 그룹 스트레이트 노 체이서의 화음이 돋보이는 2014년 곡 '텍스트 미 메리 크리스마스' (Text Me Merry Christmas)가 올랐다.
6~7위는 존 레전드가 올해 10월 발표한 앨범 '어 레전더리 크리스마스' (A Legendary Christmas)의 '브링 미 러브



'크리스마스니까' 앨범 재킷

(Bring Me Love)와 '해브 유어셀프 어 메리 리틀 크리스마스'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가 잇달아 이름을 올렸다.
또 마이클 부브레가 2012년 낸 '징글 벨' (Jingle Bells)이 8위, 제시 제이가 올해 출시한 '디스 크리스마스 데이' (This Christmas Day)가 9위, 여성듀오 제이 레빗의 2012년 곡 '윈터 윈더랜드' (Winter Wonderland)가 10위를 차지했다.
지니뮤직 관계자는 "'톱 10'에서 올해 출시된 신곡은 3곡이었다"며 "이용자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송은 주로 익숙하면서도 설렘이 담긴 감미로운 스타일의 구곡(舊曲)과 팝송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보다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양코로 특선만화 풍영이영이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댄보걸즈(재)	50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MBC 글로벌 나눔프로젝트 꿈을 빼앗긴 아이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특집토론 호남민심 어디로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를 행복아카데미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50 전라도 매력(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40 공감다큐, 사람(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뿌까 55 뽀뽀모 도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꾸러기 식사교실(재) 55 5 MBC 뉴스	00 토크콘서트 화통(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15 MBC플러스특선 대한외국인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루기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았었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자락
8	25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차종우돌 만국 유랑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댄보걸즈	00 나쁜형사	00 복수가 돌아왔다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성탄특집 안녕하세요 (안녕하사랑)	10 여순사건 70주기 여수MBC특강 도돌, 말하다. 여순민주항쟁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0 KBS 뉴스 40 이웃집 찰스(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세계 최고를 찾아라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달기 케이크>	17:15 마사와 공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중국 비경 서해객유람기 루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락락 락락 락락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00 몬카트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30 락락 락락 락락	13:10 고양이를 부탁해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8:00 당동당 유치원1~2	13:40 배워서 남줄(재)	20:40 세계테마기행 <신들의 섬, 비누아투 1부 원시의 지구를 만나다, 타나>
08:30 고고이노 공룡탐험대	14:30 몬카트(재)	21:30 한국기행 <국수기행2 1부 한겨울, 우리는 정선으로 간다>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00 마사와 공 스페셜	21:50 EBS 다큐프라임
09:00 뽀로로와 노래해요	15:15 파파리카	22:45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09:15 뽀로로 뽀로로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3:55 배워서 남줄(재)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15 똑딱맨	
10:30 한국기행(재)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4일(음 11월 18일 庚寅)

<p>36년생 현실성이 없으니 아예 꿈도 꾸지 말라. 48년생 충동이 생길 수도 있다. 60년생 절대 무리수는 두지 말라. 72년생 상대를 위한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길이다. 84년생 하찮게 여겨왔던 바가 행운과 연결되는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06, 96</p>	<p>42년생 훗날을 기억하는 것이 백 번 낫다. 54년생 상대의 의사를 수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66년생 대세를 관망한 후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유익하다. 78년생 굽은 것은 바로 펴자. 90년생 끝까지 계속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5, 41</p>
<p>37년생 그 무엇보다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49년생 의외로 복잡한 국면이다. 61년생 약점을 보완한다면 거의 완벽해질 것이다. 73년생 지난 날 인내하며 지냈던 바에 따른 보람을 느낀다. 85년생 장고한다면 참된 결론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17, 70</p>	<p>43년생 머지않아서 호조건으로 전환될 수도 있느니라. 55년생 이변을 자초하는 동세가 돼버릴까 두렵다. 67년생 생소신껏 행한다면 보람이 따를 것이니라. 79년생 돈 때문에 많은 이들이 관련 될 수밖에 없다. 91년생 노력만큼의 소득이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21, 24</p>
<p>38년생 표리가 부동하니 주의하라. 50년생 원칙과 상식을 기반으로 처리해 나간다면 발전이 있을지라. 62년생 사뭇귀경 하는 법이니 지극히 당연한 결과를 얻게 되리라. 74년생 성과가 천양지차이다. 86년생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19, 68</p>	<p>44년생 일부에 문제점이 나타난다. 56년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 가치가 크다. 68년생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80년생 기존의 면모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실효적이니라. 92년생 시작할 때 상징적인 면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9, 83</p>
<p>39년생 목표에는 못 미치겠지만 괜찮다. 51년생 불안 요소가 계속 되면서 회의를 느끼게 된다. 63년생 공통점을 찾아낸다면 국면 전환에 훨씬 수월할 것이다. 75년생 현명하게 선택한다면 고민이 해소 된다. 87년생 진위를 구분하기가 참으로 힘들겠다. 행운의 숫자 : 32, 44</p>	<p>45년생 요령이 없으면 여러 명을 고생시킨다. 57년생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리라. 69년생 소집함에 봉착할 수 있다. 81년생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93년생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호기가 주어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0, 14</p>
<p>40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해야 실효적이다. 52년생 진중하게 대하자. 64년생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려면 해야 할 일이다. 76년생 개인적인 사정보다 전체의 입장을 우선하는 것이 맞다. 88년생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6, 17</p>	<p>34년생 의욕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겠다. 46년생 기민한 감각을 통하여 얻은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58년생 위기를 기회로 글판전 시키는 계기가 된다. 70년생 상대의 충고를 소중히 여기고 경청하자. 82년생 차차 자리를 잡아간다. 행운의 숫자 : 20, 94</p>
<p>41년생 예상대로 준비한다면 적기에 쓸 수 있다. 53년생 정리정돈을 잘 해야 손해가 없다. 65년생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실책을 하게 된다. 77년생 오히려 인한 구설수가 보이니 제반사에 삼가라. 89년생 상제해야만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행운의 숫자 : 39, 60</p>	<p>35년생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함이 순리이다. 47년생 모두 알고 있다하더라도 또 살펴봐라. 59년생 부가적 기능이 주된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 71년생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는 판세이다. 83년생 기회들이 연달아서 다가 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7, 16</p>